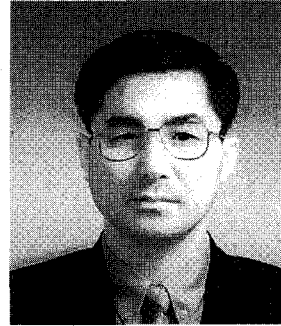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상황

농림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李 濬 遠



### 1. 서론

금년 7월이면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전 농산물이 수입자유화되고, 유통업은 이미 지난해 완전히 개방되어 외국의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과 외국농산물 수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산업의 근본인 우리농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농산물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농업의 기술혁명과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농어촌 구조개선 예산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생산비 절감효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또 다른 길은 농산물의 물류의 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비를 절감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표준화한다면 산지에서부터 규격포장하여 표준파렛트에 적재, 중간단계에 재포장없이 대형유통매장까지 일관수송, 기계화하역이 가능함으로써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도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농산물 유통의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화대책”을 지난 3월 확정하여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 2.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상황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산물 포장규격, 운송·하역기계, 시설, 정보 등을 표준화하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일관 수송체제와 주문·통명거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물류비를 절감,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물류표준화에 맞는 규격농산물 생산·수송·거래를 위한 하드웨어 건설과 소프트웨어 표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 정비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주문·통명 거래 실현을 위한 포장센터, 물류센터 건설

물류 표준화가 안된 여건하에서 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 농산물 물류의 표준화 시대에는 산지에서는 포장센터, 소비지에서는 물류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포장센터는 2004년까지 160개소 개장을 목표로 49개소 건설하였고, 현재 29개소를 선정하여 건설중에 있다. 또한 '96년까지 3,032개소 건설된 간이집하장을 매년 200개소씩 소규모 포장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포장기, 선별기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포장센터는 2004년까지 16개소 개장을 목표로 현재까지 10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양재, 창동, 청주, 부산 등 4개소는 건축중에 있고, 전주, 군위, 천안, 장성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선정된 대전과 김해는 부지매입을 준비중에 있다. 특히 양재동에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금년 12월중에 개장되면 산지 포장센터와 물류센터 그리고 대형 유통업 체간의 주문·통명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포장·시설·장비·정보 등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농산물의 경우 물동량이 많은 배추·무·수박·파·마늘·양파 등이 포장되지 않고 출하되어 있어 표준화와 기계화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포장되어 출하되더라도 표준파렛트(1,100×1,100mm) 규격에 맞게 출하되는 비율이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농업부문 파렛트 출하비율이 전무하고, 농업부문 파렛트 보급은 10~20만정도로 추정되어 국가파렛트 보급량 44백만매중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농산물 운반차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5톤이나 4.5톤트럭의 적재함이 ULS체

제에 맞지 않고, 산지·소비지의 유통시설도 자동화·기계화 개념없이 건설되었으며, 상품코드의 통일이나 거래전표·기장서식·송장의 표준화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 10일 농산물 물류 표준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농산물 포장규격, 시설·장비, 정보 표준화 작업을 금년중에 마무리 한다는 목표로 작업 추진중에 있다. 포장규격 표준화 작업은 쌀, 무·배추, 사과·배, 참외, 수박,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0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90% 이상되도록 포장규격을 분기별로 재정비 할 계획으로 우선 6월까지 34개 품목의 규격을 제정하기 위해 실태조사, 충전시험, 시제품 제작 등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설·장비 표준화를 위해서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별, 농협·축협, 대형유통업체 등 업체별 농산물 유통 시설·장비의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97년말까지 농업기계화연구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협중앙회, 유통공사 합동으로 트럭 적재함 개조, 경운기, 트랙터 적재함 표준화, 산지유통시설 표준화 모델개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마련중에 있다.' 정보표준화를 위해 송장, 거래장표, 전표, 상품코드의 표준화를 위해 도매시장, 포장센터, 유통업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다. 산물출하 농산물의 포장화 및 하역 기계화

'96년 14개 공영도매시장에 포장되지 않고 출하된 농산물은 2,217천톤으로서 전체 출하량 4,184천톤의 53%에 달하여 물류표준화를 위해서는 산물출하 농산물의 포장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 산물로 출하되는 수박·배추의 포장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포장 출하자에 대하여 포장비의 58%를 국고와 지방비에서

보조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비포장품의 출하를 억제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4월 1일부터 실시하여 비포장품 출하시 5톤트럭당 12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쓰레기유발부담금도 톤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결과 '97년 4월까지 가락시장에 반입된 배추의 13%가 골판지 포장되어 출하되고 있고, 포장출하된 배추가격이 산물출하품보다 8톤트럭당 평균 80만원이나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도매시장 쓰레기도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하는 등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배추 포장화 사업은 금년 중 개장되는 구리·안양·안산 도매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5월부터는 수박에 대해서도 포장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역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 중 파렛트 10만매, 지게차 175대, 전동차 300대, 컨베이어 3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1/4분기중 55%의 사업신청이 접수되었다. 파렛트·비파렛트 출하품에 대한 하역료 차별이 없던 것은 파렛트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서 '97. 4. 15부터 파렛트 출하품은 사과와 같은 경우 5톤차량당 18,000원으로서 비파렛트 출하품 72,000원의 1/4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 바 있다.

#### 라. 농산물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농산물 물류표준화는 농산물 유통부문에 최근 도입된 개념으로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실태파악이나 체계적인 물류표준화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7년 2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 개념과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 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생산자단체, 유통인, 물류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된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특히 포장규격, 시설·장비 및 정보표준화는 금년내 재정비 한다는 목표로 16개기관 37명이 농산물 물류표준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상설작업반을 설치, 1997년 12월말까지 표준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공사 물류개선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농산물 물동량, 물류비 및 유통마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올해에는 사과·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단감, 포도, 감귤, 수박, 참외, 오이, 감자 등 15개 품목, 23개 종류의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와 산지수집상, 저장업체, 도매상, 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유통단계별 판매량, 판매시기, 판매처, 판매방법, 유통비용 등을 조사하게 된다.

1999년부터는 지수화하여 유통신진국과 같이 유통마진, 물류비 추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유통실태 조사가 정착되면 유통단계별 유통마진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고, 농산물 물류비, 유통비용 추이와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정책을 뒷받침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3. 결론

이러한 내용의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을 금년의 농림부중점 추진과제로 채택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물류센터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단계를 현재 5~6단계에서 3~4단계로 단축되고, 물류비가 40% 수준 절감되어, 생산자는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저가격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되고, 우리농업의 유통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확신한다.